

“골키퍼, 공격의 시발점... 단순히 골 막는 역할 아니다”

FIFA 기술연구그룹 분석, PK 선방률 36%... 새 규정에 적응 결과 카타르 월드컵 4강 중 세팀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활약에 활짝 웃어

각국 골키퍼의 눈부신 승부차기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2022 카타르 월드컵 페널티킥 선방률이 이전보다 상승했다는 국제축구연맹(FIFA) 차원의 분석이 나왔다.

스위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의 FIFA 기술연구그룹(TSG) 멤버 파스칼 추버빌러는 12일(현지시간) TSG 브리핑에서 이번 대회 골키퍼들의 페널티킥 선방률이 36%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5%에 그쳤던 2018 러시아 월드컵보다 오른 수치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추버빌러는 페널티킥 때 키커의 슈팅 직전 골라인에 한 발을 붙이도록 하는 최근 규정에 골키퍼들이 잘 적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페널티킥 선방률 증가에 엄청난 수준”이라며 “새 규칙이 적용됐을 때 골키퍼들은 불명했지만, 이제는 (골키퍼들이 적응했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키퍼들이 빌드업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제 단순히 슈팅만 막는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콜롬비아 대표 출신인 파리드 몬드라곤도 “한 발을 라인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의 집중력, 선방을 위한 폭발력 등 골키퍼들이 새 규칙에 적응한 방식을 보면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0년 4월 발표한 1983년 프로축구 출범 후 페널티킥 성공률은 79.2%로 집계된 바 있다.

2010-2011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1397차례 페널티킥 가운데 1천94번이 골로 연결돼 성공률은 78%에 달했다.

이런 수치를 보면 페널티킥의 1/3 이상을 체내는 이번 대회 골키퍼들의 활약은 확실히 범상치 않다. 특히 4강에 오른 팀 중 세 팀이 승부차기에서 골키퍼의 활약에 활짝 웃었다.

모로코의 아신 부누(세비야)는 스페인과 16강전 승부차기에서 2차례 완벽한 선방을 선보이며 3-0 승리를 이끌었다.

크로아티아의 도미니크 리바코비치(디나모자그레브) 역시 일본과 16강전 승부차기에서 3차례 선방을 펼쳤고, 브라질과 8강전 승부차기에서도 첫 번째 키커 호드리구(레알 마드리드)의 슈트를 쳐내 분위기를 가져왔다.

아르헨티나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스턴 빌라)도 네덜란드와 8강전 승부차기에서 1, 2번 키커로 나선 버질 판데이크(리버풀), 스티븐 베르흐하위스(아약스)의 슈트를 쳐내 영웅이 됐다.

추버빌러는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 프랑스, 토고가 묶인 조별리그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활약하며 ‘아드보카트호’를 울린 이력이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와 16강전에서도 연장 후반까지 실점 없이 막아내 승부차기로 이끌었지만, 스위스 키커들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 0-3으로 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내일 새벽 준결승전을 치르는 모로코의 아신 부누(왼쪽) 골키퍼와 프랑스 위고 요리스 골키퍼.

/연합뉴스

‘황금의 왼발’ 이강인·‘마스크 투혼’ 손흥민 소속팀 복귀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소속팀인 레알 마요르카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손흥민이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로 복귀하기 위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월드컵에서 얻은 좋은 기운 이어가겠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골든 보이’ 이강인(21·마요르카)이 다시 소속팀에서 비상을 준비한다.

이강인은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스페인에 도착한 직후 소속팀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마요르카에 합류해 남은 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한다.

검은색 후드와 편한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공항으로 들어선 이강인은 손짓으로 인사하며 소속팀인 마요르카에서도 월드컵에서 얻은 좋은 기운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난 이강인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거듭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월드컵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선수 경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특유의 정교한 왼발 킥 능력으로 벤투호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발판이 됐다.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 후반 교체 투입 1분 만에 왼발 크로스로 조규성(전북)의 추격 골을 도운 이강인은 포르투갈과 3차전에서도 김영권(울산)의 만회골로 이어지는 코너킥도 쳤다. 그가 전반 27분에 올린 코너킥이 호날두의 몸에 맞고 문전으로 향했고, 김영권이 슈팅해 동점골을 뽑았다. “집에서 푹 쉬었다”는 이강인은 가족들의 배웅 속에 출국장으로 향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직전 이강인을 알아본 팬이 “잘생겼다”며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흔쾌히 응하기도 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4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마요르카는 오는 21일 예정된 코파 델레이(국왕컵) 경기를 시작으로 월드컵 휴식이 이후 시즌을 재개한다.

즉석 사인회 열고 팬 200명 배웅 속 출국

12년 만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16강 달성에 앞장선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이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7일 입국했던 손흥민은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 합류해 26일 재개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등 경기 일정에 대비한다.

손흥민은 출국장에 몰린 팬 200여 명의 배웅을 받았다.

빼곡히 몰린 팬들에게 사인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 애쓰면서 출국 수속 카운터로 가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다. 예고 없이 시작된 손흥민의 ‘즉석 사인회’는 40분 가까이 이어졌다.

손흥민은 지난달 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에서 왼쪽 안와 골절이라는 큰 부상에도 대표팀 주장 완장을 차고 월드컵에 출전, 한국 축구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16강에 오르는 데 앞장섰다.

이번 월드컵에서 ‘마스크 투혼’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안긴 그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 3차전(2-1 승)에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역전 결승골 때 멋진 ‘킬 패스’로 어시스트를 작성해 주역으로 빛났다.

토트넘은 26일 오후 9시 30분(이하 한국시간)부터 열리는 브렌트퍼드와의 EPL 17라운드 원정 경기로 월드컵 이후 공식전 일정을 이어간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엔 정규리그 3골 2도움, UCL 2골 등 공식전 합계 5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 프랑스 - 모로코 전력 비교

프랑스 vs 모로코 12월 15일 오전 4시

프랑스	모로코
감독: 디에 데상 (54세 / 프랑스 출생)	감독: 알리드 라크리키 (47세 / 프랑스 출생 / 모로코-프랑스 국적)
16회 월드컵 본선 진출	6회 월드컵 본선 진출
10골 (5골 3도움, 18득점 / 3실점)	16골 (8골 2도움, 20득점 / 1실점)
9골 (2골 0도움, 6득점 / 3실점)	8골 (3골 1도움, 11득점 / 3실점)
7골 (2006년 1골, 2006년 2골, 2018년 2골)	4골 (2006년 1골, 2006년 1골, 2006년 1골, 2006년 1골)
유리 D조 1위	카타르 월드컵 지역예선 성적
아프리카 1조 1위*	아프리카 1조 1위*
UEFA 챔피언스리그 4위	UEFA 챔피언스리그 22위
UEFA 챔피언스리그 3승 2무 (12득점)	UEFA 챔피언스리그 2무 3패 (6득점)
26.7세 (출생연도 기준)	26.4세 (출생연도 기준)
185cm	183.2cm
약 2조 1,210억원 (이적료 추정치 기준)	약 4,350억원 (이적료 추정치 기준)

축구협회 “새 국가대표 감독, 내년 2월까지 선임”

내년 예산 1581억원 ‘역대 최대’

한국 축구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의 뒤를 이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이 내년 2월까지 선임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이사회에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새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일정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2018년 9월부터 대표팀을 지휘한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재계약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에 따라 한국 축구는 새로운 국가대표 사령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보고된 계획에 따르면 새 감독 선임은 내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합한 지도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이날 중 새 감독 선임 기준을 확정하고 1차 후보군을 추릴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최종 후보군을 선정할 뒤 명목으로 역량을 점검하고, 2월엔 우선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개별 협상을 진행해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2023년 협회 예산안 심의도 이뤄졌다.

내년 축구협회 예산은 1581억원으로, 올해(1141억원)보다 440억원 늘었다.

2013년의 1234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축구협회는 “2024년 천안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의 수입 중엔 공식 파트너 기업의 후원금과 A매치 수익, 국제축구연맹(FIFA) 배당금 등 협회의 자체 수입이 8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스폰서로부터 기금 수입(220억원)이 뒤를 잇는다. 지출 항목에선 축구종합센터 건립 비용(511억원)과 각급 대표팀 운영비(325억원), 국내 대회 운영비(269억원)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월드컵 4강전 15(목) ※한국시간 기준 프랑스 vs 모로코 04:00 자료: FIFA